

<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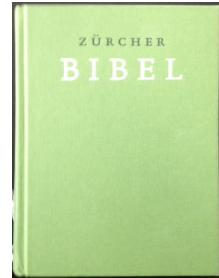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Konrad Schmid and Matthias Krieg, eds.,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11)

박동현* 이상원**

1.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는 스위스 『취리히 성서』(*Zürcher Bibel*) 2007년 개정판 ‘부교재’[*bibel(plus)*]의 하나인 『취리히 성서 해설』을 소개하면서 이런 해설 성서를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여러 나라 성서공회에서는 성서를 새로 번역하거나 개정하거나 보급하는 일 말고도, 새로 번역하거나 개정한 성서를 잘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스위스 취리히 개혁교회(Evangelisch-reformierte Landeskirche des Kantons Zürich)에서는 2007년에 『취리히 성서』(*Zürcher Bibel*) 개정판¹⁾만 펴 낸 것이 아니라 다음 네 가지 ‘부교재’[*bibel(plus)*]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그 네 자료는 우선 겉모습부터 서로 다릅니다.

1) 『둘러보기 - 취리히 성서 가이드』

(*Besichtigt. Der Reiseführer zur Zürcher Bibel*, 초판 2007; 제2판 2009): 가로 21.3센티미터, 세로 15.3센티미터, 전체 159쪽, 연한 주황색 책 겹질.



* 장로회신학대학교 은퇴교수. 독일 베를린 신학대학(Kirchliche Hochschule Berlin, 지금의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신학부) 신학박사(Dr. theol.). dhpark52@gmail.com.

**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독일 튀빙엔 대학교(Universität Tübingen) 신학박사(Dr. theol.). sangwon83@hanmail.net.

1)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http://www.tvz-verlag.ch/zh-bibel>에 있는 “Die neue Übersetzung der Zürcher Bibel”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깊이 들어가기 - 취리히 성서 세미나』
(*Vertieft. Das Seminar zur Zürcher Bibel*, 2007): 가로 21.3센티미터, 세로 30.1센티미터, 연한 초록색 책 겹질.



3) 『뜻풀이 - 취리히 성서 해설』(*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초판 2010; 제2-3권 제2판 2011): 가로, 세로 다 22.2센티미터의 정사각형 꼴, 목차와 머리말에 뒤이어 구약성서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를 해설한 제1권(1-876쪽)과 역대상부터 말라기까지를 해설한 제2권(877-1938쪽)과 신약성서 해설과 부록을 한데 묶은 제3권(1939-2716쪽), 모두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 겹질의 색은 세 권이 차례대로 하늘색, 초록색, 고동색입니다.



4) 『함께 듣기 - 원음 취리히 성서』(*Mitgehört. Der Originalton zur Zürcher Bibel*, 2007):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 본문 가운데서 뽑은 것을 읽어 녹음한 콤팩트 디스크(Compact Disc) 다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주로 소개하려는 것은 셋째 자료인 『뜻풀이 - 취리히 성서 해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자료를 『취리히 성서 해설』로 줄여 부르기로 합니다.

맨 먼저 『취리히 성서』 번역과 개정의 역사를 간추려 살펴봅니다(2.). 이어서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 부교재 네 가지의 성격과 내용을 간단

히 소개합니다(3.). 그리고 나서 『취리히 성서 해설』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성서 각 책 전체의 기본 정보와 해설문을, 성서의 첫 책인 창세기와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을 보기로 알아봅니다(4.). 그 다음에 성서의 각 본문이 생겨나는 과정을 비교적 잘 드러내며 본문의 뜻을 풀이한 보기로, 신명기 전체 해설문과 신명기 1장과 12장의 뜻풀이를 살펴봅니다(5.). 마지막으로 『취리히 성서 해설』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정리하면서(6.) 우리가 갈 길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7.).

2. 『취리히 성서』 번역과 개정의 역사 483년(1524~2007년)

스위스 독일어 번역 성서인 『취리히 성서』는 『루터 성서』²⁾와 마찬가지로 신약성서부터 나왔습니다.³⁾ 1522년 독일 비텐베르크(Wittenberg)에서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번역한 신약성서가 나오자 스위스에서는 이 신약성서를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남부 독일과 바로 이어지는 스위스의 도시 바젤(Basel)에서는 독일에서 쓰지 않는 여러 낱말을 풀이하는 “낱말모음(Glossar)”을 덧붙여 내놓았고, 스위스 안쪽에 있는 도시 취리히(Zürich)에서는 홀드리히/울리히 츠빙글리(Huldrych/Ulrich Zwingli)가 중심이 되어 루터의 신약성서를 알레만어(Alemannic)⁴⁾로 고쳐 1524년에 출판했습니다. 그 뒤로도 취리히에서는 루터가 번역하는 구약성서가 나오는 대로 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구약 예언서와 시편, 잠언, 아가, 외경은 취리히에서 나름대로 번역해 나갔습니다. 츠빙글리가 만든 “말씀 전하기(Prophezei)” 모임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마다 설교자들과 신학생들이 만나 성서 본문을 한 단락씩 연구하며 번역했습니다.⁵⁾ 이 점을 생

2) 최신 개정판인 『루터 성서 2017년』(*Lutherbibel 2017*)은 종교개혁 500주년 한 해 전인 2016년에 독일성서공회에서 펴냈습니다. 이 개정판 본문은 <https://www.die-bibel.de/bibeln/online-bibel/lutherbibel-2017>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취리히 성서 출판과 개정 역사에 대해서는 Waldtraut Ingeborg Sauer-Geppert, “Bibelübersetzungen III/1”, Gerhard Krause und Gerhard Müller, hrsg.,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6 (Berlin; New York: W. de Gruyter, 1980), 243-244; Wilhelm Gundert, “Bibelübersetzungen IV/1”, Gerhard Krause und Gerhard Müller, hrsg.,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6 (Berlin; New York: W. de Gruyter, 1980), 271-272; <https://www.bibelwissenschaft.de/wibilex/das-bibellexikon/lexikon/sachwort/anzeigen/details/bibeluebersetzungen-christliche-deutsche/ch/73ef820864a3879e22854008a752c356/>에 있는 항목 2.3 Die Zürcher Bibel과 3.3 Die Revisionen der Zürcher Bibel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독일 서남부 고지대에서 쓰는 독일어로, 독일 남부(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바이에른 주)와 프랑크(알자스 지역)와 스위스(바젤, 취리히 등)와 오스트리아 일부 지역 등에서 씁니다.

각하면, 츠빙글리가 중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취리히 성서』는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 함께 번역해 낸 성서라 할 만합니다.⁶⁾

1534년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다 들어 있는 『루터 성서』가 나오기도 전인 1531년에 취리히에서는 이미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다 들어 있는 『취리히 성서』를 찍어 냈습니다. 그리고 보면 신구약성서가 들어 있는 최초의 독일어 성서는 『루터 성서』가 아니라 『취리히 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리히 성서』의 구약성서는 1540년까지 다시 손질했고, 신약성서는 1574년까지 개정했습니다. 그 뒤로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취리히에서는 츠빙글리의 정신을 살려⁷⁾ 끊임없이 성서 원문과 낱말이 견주어 보면서 『취리히 성서』를 다듬어 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문 연구의 새로운 열매를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언어에 맞게 고쳐 왔습니다. 이리하여 『취리히 성서』는 『루터 성서』 못지않게 중요한 독일어 번역 성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취리히 성서』의 여러 개정판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우선 1667년의 개정판입니다. 이 개정판에서는 『취리히 성서』의 알레만어를 표준 독일어 문어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취리히 성서』는 알레만어 성서라는 특성이 사라집니다.

1907년 취리히 교회 총회(Die Zürcher Kirchensynode)는 『취리히 성서』를 다시 고치기로 하고, 츠빙글리가 죽은 뒤 400년이 지난 1931년에 새로운 개정판을 내놓았습니다. 이 개정판에서는 무엇보다도 구약성서의 정확한 번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성서학 연구의 새로운 결과를 받아들여 원문을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하여 그 뜻을 제대로 드러내려고 애썼습니다.

1931년 개정판이 나온 뒤로도 성서학과 역사학과 언어학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리하여 1984년 취리히 개혁교회 총회(Die Synode der

5) Volker Leppin, “Zwingli, Ulrich (1484-1531)”, Gerhard Müller, hrsg.,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36 (Berlin; New York: W. de Gruyter, 2004), 793-809, 바젤 “대성당에 장날인 금요일을 빼고는 주중에 날마다 그 도시의 모든 성직자들이 모여 츠빙글리가 성서 본문을 라틴말과 히브리말과 그리스말로 읽고 풀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797쪽.

6) 바로 앞에 있는 글의 같은 쪽에서 알려주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도 취리히 성서가 나온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취리히 성서를 계속 다듬었던 츠빙글리였던 만큼 취리히 성서는 츠빙글리 성서라 할 만한데, 취리히 성서를 처음부터 언제라도 개정할 수 있게 하려는 마음으로 츠빙글리는 자기 이름을 붙여 이 성서 부르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7)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을 맞아 독일성서공회에서 펴낸 『루터 성서 2017년』을 비롯하여 이제까지 나온 모든 루터 성서 개정판이 루터가 쓴 번역어를 최대한 살리려고 한 것과는 달리, 『취리히 성서』의 여러 개정판은 츠빙글리의 정신을 따라 츠빙글리에 크게 매이지 않고 늘 원문에서 새롭게 번역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vangelisch-reformierten Kirche Zürich)는 『취리히 성서』를 새롭게하기로 결정하였고, 20년(1987~2007년)의 작업을 거쳐 2007년 개정판을 펴냈습니다. 이 개정판에서도 『취리히 성서』의 번역 전통에 걸맞게 새로운 본문 비평과 주석의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뜻을 풀어 알려주는 식의 번역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구약성서 원어(히브리어와 아람어)와 신약성서 원어(그리스어)의 특성을 살려 내려고 무척 힘썼습니다. 또 성서 시대와 오늘의 문화가 크게 다를 때 이를 억지로 서로 짜 맞추려 하지 않고 오늘의 독자들에게 낯선 것은 낯선 그대로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읽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대로 성서 본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설 길을 열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성서 원문의 뜻에 맞추어 현대어 표현으로 번역했을 경우에는 각주에 원문 글자 그대로 번역한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각주에는 『취리히 성서』 본문과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보기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 대한 설명도 적어 놓았습니다. 또 성서 뒷부분에는 상당한 분량의 “용어 해설집(Glossar)”뿐만 아니라 도량형 단위, 주화 및 화폐 가치, 연대표, 이 개정판에서 밀바탕으로 삼은 원문, 하나님 이름 표기법, 각주, 관련 구절 표시에 대한 안내를 담은 사용 안내문, 마지막으로 몇 장의 지도가 덧붙여 있습니다.

3.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의 ‘부교재’ [bibel(plus)]

1)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의 ‘부교재’[bibel(plus)] 네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관련시켜 활용하도록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하여 이 넷은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과 함께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룹니다.

이 점은 우선 『취리히 성서 해설』 각 쪽 바깥쪽과 『둘러보기 - 취리히 성서 가이드』 각 부분의 첫머리 바깥쪽과 『깊이 들어가기 - 취리히 성서 세미나』 각 장의 첫머리 바깥쪽에 나오는 “귀띔(tip)”과 “초점(spot)”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⁸⁾

2) 『둘러보기 - 취리히 성서 가이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첫 부분인 “사용 길라잡이(Gebrauchsanweisung)”에서는 『취리히 성서』

8) 『취리히 성서 해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아래 3.5)와 4.를 보십시오.

2007년 개정판과 함께 이 책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짚막하게 알려 줍니다.

(2) 둘째 부분인 “소통(Verständigung)”에서는 성서 자체와 성서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문 개념(이를테면 ‘묵시’, ‘복’, ‘비유’, ‘사도’, ‘지혜’ 등) 103가지를 독일어 알파벳 순서로 아주 짧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3) 셋째 부분인 “역사(Geschichte)”에서는 성서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성서 번역과도 관련된 지난 3500년(기원전 2400년~기원후 2007년)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4) 이 책의 본론인 넷째 부분 “찾아볼 곳(Orte)”에서는, 성서의 책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 한 권 안으로 독자들을 모셔 들입니다.

① 성서의 각 책을 소개하는 첫머리에서는 보통 “귀뜸(tip)”과 “초점(spot)”의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 “귀뜸(tip)”에서는 성서 안에 들어 있는 이 책의 어느 부분을, “매체(Mittel)”에서는 마지막 부교재인 『함께 듣기 - 원음 취리히 성서』 콤팩트 디스켓에서 들어 보면 좋은지 밝혀 두었습니다. 또 성서의 각 책과 관련하여 읽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책(Buch), 들을 만한 고전음악(Klassik)과 현대 대중음악(Pop), 볼만한 영화(Film)도 소개합니다.

- “초점(spot)”에서는 이 책에서 읽어볼 만한 대표적인 단락을 알려 줍니다.

② 그 책의 어떤 본문을 읽으며 어떤 내용을 마음에 간직할지, 또 개혁신교회에서 그 책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알려 줍니다. 20세기에 찍어 둔 이스라엘 지역 사진도 곁들였습니다. 또한 성서 각 책의 전체 짜임새를 도표로 그려 놓았습니다.

(5) 마지막으로 다섯째 부분인 “나들이(Ausflüge)”에서는 성서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이를테면 ‘창조’, ‘선택’, ‘기름 부음’, ‘산’, ‘정의’, ‘돈’ 등) 열네 가지의 중심 본문들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도 각 주제를 다루는 첫머리에서는 바로 앞 (4)와 마찬가지로 “귀뜸(tip)”과 “초점(spot)”을 두어 참고자료를 소개합니다.

3) 『깊이 들어가기 - 취리히 성서 세미나』는 다섯 사람의 전문가(목회자, 신학자, 기독교교육 전문가, 예술가, 건축가)가 독일어를 쓰는 스위스 개별 교회에서 쓰도록 개발한, 알차고 수준 높은 성인 성서교육 교재입니다.

(1) 기원전 2600년부터 기원후 600년까지 이르는 긴 기간을 25개의 시기

로 나누고, 각 시기의 중심 주제(‘신들의 임금’, ‘해’, ‘부부’, ‘목자’, ‘구주’ 등)를 정하여 거기에 맞는 옛 중동 문헌 본문이나 성서 본문이나 그리스도교 초기 문헌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할 자료를 소개해 줍니다.

(2) 각 장은 첫 쪽 전체를 채우는 현대 그림(Grafik) 한 쪽을 본(gesehen) 다음에, 색깔 있는 종이에 검은색 글씨로 써 놓은(geschrieben) 중심 본문을 읽고, ‘겪어보기(erlebt)’, ‘옛 장소로 가보기(verortet)’, ‘자리 찾기(eingereiht)’, ‘뜻 알기(ausgelegt)’, ‘받들기(verehrt)’, ‘되묻기(nachgefragt)’, ‘읽은 자료(gelesen)’의 차례로 공부하게 해 놓았습니다.

- ‘겪어보기(erlebt)’에서는 중심 본문을 읽고 들은 다음에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 연극을 해 보도록까지 제안합니다.

- ‘옛 장소로 가보기(verortet)’에서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나라와 민족과 사회의 상황을 알려 줍니다.

- ‘자리 찾기(eingereiht)’에서는 본문의 역사 배경과 통일성과 짜임새와 흐름을 알아봅니다.

- ‘뜻 알기(ausgelegt)’에서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알려 줍니다.

- ‘받들기(verehrt)’에서는 본문의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 ‘되묻기(nachgefragt)’에서는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돌이켜보게 하는 질문을 적어 두었습니다.

- ‘읽은 자료(gelesen)’에서는 이 장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을 밝힙니다.

4) 『함께 듣기 - 원음 취리히 성서』는 다섯 장의 콤팩트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자, 여자 두 사람씩 모두 네 사람의 배우가 구약성서에서 뽑은 마흔두 군데 단락과 신약성서에서 뽑은 열여덟 군데 단락뿐만 아니라 『깊이 들어가기 - 취리히 성서 세미나』의 본문으로 제시된 옛 중동 문헌(바빌론의 길가메쉬 서사시 일부, 이집트의 아마르나 태양신 찬양시, 가나안 비석에 적힌 글)과 그리스도 초기 관련 문헌(나그 함마디의 그노시스 문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고백문, 베네딕트 수도원 규율)도 각각 세 군데씩 입체적으로 읽어 녹음해 놓았습니다.

5) 『취리히 성서 해설』의 중심을 이루는 해설과 해설 관련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아래 4.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첫 책 첫머리의 “머리말(Einleitung)”과 셋째 책의 맨 뒤에 “덧붙임(Anhang)”만 다루기로 합니다.

(1) 첫 책 첫머리의 “머리말(Einleitung [6-7쪽])”에서는

①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과 이 개정판의 ‘부교재’[bibel(plus)]를 소개하면서 『취리히 성서 해설』이 그 가운데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먼저 밝힙니다.

② 그런 다음에 『취리히 성서 해설』의 짜임새와 내용을 크게, 책 각 쪽의 안쪽에 둔 ‘해설 부분(Lauftext)’과 바깥쪽에 둔 ‘참고자료 제시 부분(Rand)’에 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③ 뒤이어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과 이 개정판의 ‘부교재’[bibel(plus)]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므로 늘 서로 관련시켜 활용할 것을 권하고, 감사의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2) 셋째 책 맨 뒤의 “덧붙임(Anhang)”에서는

① “용어 해설집(Glossar [2676-2694쪽])”이 눈에 두드러집니다. 여기에는 본문 뜻풀이 각 쪽의 바깥쪽에 내용을 실어 두지 않은 용어의 해설⁹⁾을 모아 두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169개나 됩니다.¹⁰⁾ 독일어 알파벳 순서대로는 ‘압바(Abba)’에서 시작하여 ‘방언(Zungenrede)’으로 끝납니다.

② 그 다음(2696-2698쪽)에 나오는 것이 ‘용어 해설 목록(Register der theologischen Essays)’입니다. 여기에는 본문 뜻풀이의 바깥쪽에 이미 붙여 놓은 올림말을 한데 모아 두었습니다. 이 목록은 ‘알파와 오메가(A und O)’ 항목에서 시작하여 ‘혀(Zunge)’ 항목으로 끝나는데, 각 항목이 성서 어느 구절의 해설에, 이 해설집 몇 쪽에 붙어 있는지도 밝혀 놓았습니다. 모두 178개 항목이나 됩니다.

③ 셋째로는(2700-2701쪽) ‘개혁교회 교리에 영향을 준 주제 해설 목록(Register der Reformierten Wirkungen)’이 있습니다. ‘성만찬(Abendmahl)’ 항목에서 시작하여 ‘혀(Zunge)’ 항목으로 끝나는데, 여기에도 각 항목이 성서 어느 구절의 해설에, 이 해설집 몇 쪽에 붙어 있는지도 밝혀 놓았습니다. 모두 108개 항목입니다.

④ 넷째로(2702-2707쪽) ‘개혁교회 교리에 영향을 준 주제 해설 참고도서 목록(Bibliographie der Wirkungen)’이 나옵니다.

⑤ 다섯째로는(2708-2711쪽) ‘그림 자료 출처 목록(Abbildungsnachweis)’

9) 이를테면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 뒷부분에 붙여 놓은 용어 해설집의 맨 첫 항목인 ‘알파와 오메가(A und O)’는 계 1:8의 ‘해설 참고 자료(Essay)’로 제3권 2638쪽 왼쪽 가장자리 아랫부분에 실어 놓았습니다.

10)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 뒷부분에 붙여 놓은 용어 해설집에는 302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나옵니다. 본문 뜻풀이와 관련하여 나온 여러 그림이 어디에서 왔는지 밝힙니다.

⑥ 마지막으로 ‘해설자 명단(Verzeichnis der Autorinnen und Autoren)’이 붙어 있습니다. 본문 뜻풀이를 한 구약학자 23명과 신약학자 17명, 또 본문 내용과 관련된 개혁신교회 교리를 정리한 조직신학자 1명, 모두 41명인데 스위스 출신 학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 교회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거나 교회 관련 여러 기관에서 활동해 본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젊은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해설을 쓴 마틴 로이엔베르거(Martin Leuenberger, 1973년생)이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시편,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해설을 쓴 클라우스 자이볼트(Klaus Seybold, 1936년생)입니다.

4. 『취리히 성서 해설』의 해설과 해설 관련 참고자료

성서 본문의 단락별 뜻풀이에 앞서 성서 각 책 전체를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신구약성서의 큰 묶음(오경, 역사서, 복음서 등)을 안내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 점에서 『취리히 성서 해설』은, 독일성서공회에서 내놓은 해설 성서¹¹⁾나 미국성서공회에서 영어 굿뉴스바이블(Good News Bible) 본문에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마련한 해설을 덧붙여 낸 해설 성서¹²⁾나¹³⁾ 국제가톨릭성서공회가 편찬해 낸 해설 성서¹⁴⁾와 다릅니다.

11) *Stuttgarter Erklärungs-bibel. Lutherbibel mit Erklärungen*을 가리킵니다. 1992년에 나온 제2판의 해설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개역한글판 본문과 개역개정판 본문에 각각 붙여 1997년과 2001년에 『해설·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과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라는 이름으로 펴냈습니다. 독일성서공회에서는 2005년에 외경 부분을 덧붙여 *Stuttgarter Erklärungs-bibel. Lutherbibel mit Erklärungen mit Apokryphen*을, 2007년에 조금 고쳐 제2판을 펴냈습니다.

12) 1997년 판 *Good News Study Bible*.

13) 이 두 가지 해설 성서에 대한 서평은 왕대일,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구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2001), 41-55; 김창락,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2001), 56-68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김영봉,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 스테디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원문연구』 9(2001), 69-82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14) *Biblia Sagrada. Edição Pastoral. Introdução e notas* (Brasília: Sociedade Bíblica Católica Internacional, 1992). 이 해설 성서의 해설을 우리말로 옮겨 공동번역 본문에 붙여서 광주의 ‘일과놀이’ 출판사에서 1995년에 『성서 해설판 공동번역 국제가톨릭성서공회 편찬』이라는 제목으로 펴냈습니다.

1) 성서 각 책 해설의 짜임새

(1) 성서 각 책 해설 첫 쪽에서는 책 이름(히브리어 성서, 칠십인역 성서, 불가타 성서, 취리히 성서), 쓴 때, 생긴 곳, 쓴 사람, 문학 형식(Textsorten), 통일성, 정보 가치, 중심 낱말, 신학, 활용(Benutzung), 영향(Wirkung)을 아주 간단하게 도표식으로 소개합니다.

GENESE	
1a	Hebräischer Text (Gen 1-11)
1b	Septuaginta (Gen 1-11)
1c	Biblia Latina (Gen 1-11)
1d	Septuaginta (Gen 12-50)
1e	Hebräischer Text (Gen 12-50)
1f	Septuaginta (Gen 12-50)
1g	Biblia Latina (Gen 12-50)
1h	Septuaginta (Gen 1-50)
1i	Hebräischer Text (Gen 1-50)
1j	Biblia Latina (Gen 1-50)
1k	Septuaginta (Gen 1-50)
1l	Hebräischer Text (Gen 1-50)
1m	Biblia Latina (Gen 1-50)
1n	Septuaginta (Gen 1-50)
1o	Hebräischer Text (Gen 1-50)
1p	Biblia Latina (Gen 1-50)
1q	Septuaginta (Gen 1-50)
1r	Hebräischer Text (Gen 1-50)
1s	Biblia Latina (Gen 1-50)
1t	Septuaginta (Gen 1-50)
1u	Hebräischer Text (Gen 1-50)
1v	Biblia Latina (Gen 1-50)
1w	Septuaginta (Gen 1-50)
1x	Hebräischer Text (Gen 1-50)
1y	Biblia Latina (Gen 1-50)
1z	Septuaginta (Gen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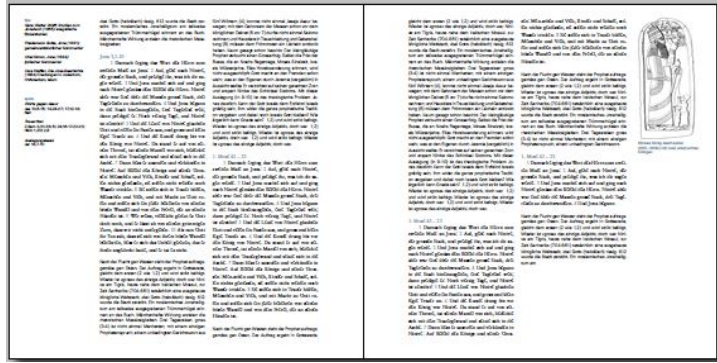
Nach der Flucht gen Wenen fand der Prophet auftragsgemäß gen Oden. Der Auftrag ergab in Genesim, gleich dem ersten...
...nachdem die Jungfrauen die Güter (Genesim) aus dem (Paradies) weg, 612 wurde die Stadt zerstört. Ein...
...schickte, um die heiligen eingeweihten Turmwahr...
...genannt an die ihm. Mitunter die Wirkung gewesen die...
...Menschen mit einem einzigen Propheten sprach, einem...
...Schriftsteller an der (Genesim) ...
...bewegen mit dem Gehörten die Menschen schon vor dem...
...richtigen Gottes durch den verbal Bilden, mehr und...
...Freude und Gebetsstunde haben dem Fremden an...
...Lächen entdeckt haben.

(2) 이어서 색깔(구약은 하늘색, 신약은 고통색)이 있는 종이 한 장에 흰색 글자로 그 책에 관한 기본 내용을 알려 줍니다. 본문 해설에서는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 본문을 먼저 단락별로 나누어 제시한 다음에 그 단락의 뜻을 풀이합니다.

(3) 마지막 단락 뜻풀이가 끝난 뒤에 뜻풀이를 한 사람의 이름을 밝혀 두었습니다.

2) 본문 뜻풀이 각 쪽의 모습과 내용

(1) 가로로 각 쪽의 안쪽(홀수 쪽은 왼쪽, 짝수 쪽은 오른쪽)으로 전체의 5분의 4쯤 되는 공간에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 본문 단락을 두 단으로 나누어 실은 다음에 그 뜻풀이를 마찬가지로 두 단으로 나누어 실었습니다. 본문과 뜻풀이는 글꼴을 달리 하여 구별해 놓았습니다. 뜻풀이의 길이는 본문의 길이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뜻풀이가 상당히 길어지기도 합니다. 창세기 1:1-2:4상



는 본문의 길이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뜻풀이가 상당히 길어지기도 합니다. 창세기 1:1-2:4상

반절의 경우에는 뜻풀이가 본문의 네 배 더 됩니다. 그만큼 본문을 중요하게 다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 쪽의 바깥쪽(홀수 쪽은 오른쪽, 짝수 쪽은 왼쪽)으로 전체의 5분의 1쯤 되는 공간에서는 해당 본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해설보다는

더 작은 글씨로, 또 줄 사이를 좁혀서 소개합니다.

(2) 각 쪽 안쪽의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 본문과 해설

책의 쪽수가 너무 많아지지 않게 하려고 본문이 시일 때는 줄을 바꾸어 쓰지 않고 줄이 바뀌는 곳에 빗금(/)을 그어 두었습니다. 시의 연이 시작하고 끝나는 곳에는 빗금을 겹으로(//) 그어 두었습니다. 본문이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나중에 들어온 신약 본문은 대괄호([])로 둘러쌌습니다.

뜻풀이 가운데 들어 있는 본문은 기울어진 글꼴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 본문에서는 ‘주님’을 뜻하는 독일어 철자 네게를 모두 대문자로 적고(HERR), 뜻풀이에서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독일어 철자 네게를 모두 대문자로 적습니다(JHWH).

(3) 각 책 본문 풀이 첫 쪽 바깥쪽의 참고자료 제시

성서의 각 책 본문 풀이 첫 쪽(홀수쪽) 바깥쪽 “귀땀(tip)”에서 소개하는 참고자료는 “더 읽을거리(Lektüre)”와 “매체(Mittel)”입니다.

① “더 읽을거리(Lektüre)”에서는 지금 풀이하는 책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려주면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쓴 참고 자료를 소개합니다.

② “매체(Mittel)”에서는 지금 풀이하는 책과 관련된 부분이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 ‘부교재’[bibel(plus)]의 다른 세 가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4) 각 장 본문 풀이 첫머리 바깥쪽의 참고자료 제시

각 장 본문 풀이 첫머리 바깥쪽에 있는 “초점(spot)”에서는 다음 여러 참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색 있는 숫자는 해당 장의 절수를 가리킵니다.

① “관련본문(Stellen)”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는 성서 다른 곳을 알려줍니다.



② “용어 해설(Essay)”에서는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의 “용어 해설집”에 들어 있는 올림말을 제시합니다. 용어 해설 내용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거나, 그 용어의 중심 본문이 있는 자리에 해 두었습니다. 3권 끝의 “용어 해설집”이나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 뒤에 붙은 “용어 해설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③ “영향(Wirkung)”에서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특히 개혁교회에 성서에 근거하여 어떤 가르침을 만들어왔는지 알려 줍니다. 먼저 중심 개념을 적고 뒤이어 관련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거나 다른 관련 본문을 찾아 볼 수 있게 합니다.

④ 그 밖에 가끔 성서 고고학 그림 자료도 소개합니다.

3) 성서 각 책 전체의 기본 정보와 참고자료 소개의 보기

(1) 창세기 전체의 기본 정보 소개

① 첫 쪽(10쪽)에서는 창세기에 관한 기본 정보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도표식으로 소개합니다.

책 이름	히브리어 성서 “처음에” 칠십인역 성서 “근원” 불가타 성서 “근원의 책” 취리히 성서 “근원 - 모세의 첫 책”
쓴 때	기원전 1000~200년쯤,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온 부분도 있음
생긴 곳	벧엘, 예루살렘, 이집트 디아스포라(창 37-50),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창 1-11)
쓴 사람	입에서 입으로 전해 준 백성, 예루살렘 안팎의 제사장들
문학 형식	역사 이야기, 역사 기록, 이야기(창 37-50)
통일성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 생겨남, 다른 여러 책과 하나로 묶는 복잡한 과정을 겪었음
정보 가치	옛 중동의 여러 종교에 비추어 성서 본문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본문
중심 낱말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에덴동산, 홍수, 언약, 땅, 이스라엘
신학	유일신론, 창조 신학, 신학적 인간론, 조건 없는 약속, 축복,



역사신학
 활용 제사장 무리
 영향 아마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책인 듯함, 예술과 문학과 문
 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침

② 둘째와 셋째 쪽(11-12쪽)에서는 짙은 하늘색 바탕의 종이에 큰 글씨로 하얗게, 창세기의 문학적 성격과 생겨난 과정과 중요성과 짜임새와 중심 내용과 흐름과 신학적 의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죽 이어서 써 놓았습니다. 길고 짧은 문장이 모두 열 넷인데, 실제로는 다섯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정해진 공간에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 새 단락을 새 줄로 시작하지 않고 단락 사이에 그냥 줄표만 넣어 두었습니다.

③ 창세기 본문 뜻풀이 첫 쪽(13쪽) 바깥쪽에서는 창세기 전체에 관한 참고자료를 알려 줍니다.

- “더 읽을거리(Lektüre)”에서는 최근(1994~2009년)에 독일어로 나온 창세기 연구서나 주석서를 여덟 권이나 소개합니다. 연구 본문의 순서에 맞추어 각각 그 특성을 짧게 알려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맨 뒤에는 학문적인 주석서의 대표적인 보기로 지금까지 나온 창세기 주석서로 그 분량이 가장 큰 클라우스 베스터만(Claus Westermann)의 세 권으로 된 주석서를 제시합니다.

- “매체(Mittel)”에서는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 ‘부교재’ [bibel(plus)]의 다른 세 가지 어디에 창세기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2) 마가복음 전체의 기본 정보 소개

① 첫 쪽(2030쪽)에서는 창세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 관한 기본 정보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도표식으로 소개합니다.

책 이름	그리스어 성서	“마가에 따름”
	불가타 성서	“마가에 따른 복음서”
	취리히 성서	“마가에 따른 복음서”
쓴 때	기원후 70년쯤, 유대 독립전쟁 때(66~73년)	
생긴 곳	팔레스타인 밖, 헬레니즘 문화가 중심을 이루는 로마 제국 영토 안의 어딘가에서	
쓴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유대교와 맞닿아 있는 문화권 출신	
문학 형식	기적 이야기, 비유,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수난 이야기	
통일성	따로 전해내려 오던 여러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음,	

	끝부분(16:9-20)은 나중에 덧붙음
정보 가치	예수님의 활동과 주변 환경, 또 그리스도교 초기의 교회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음
중심 낱말	권위, 하나님 나라, 믿음, 깨닫지 못하다, 따르다, 두려움, 십자가
신학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신지는 십자가로부터만 드러난다.
사용	그리스도교 초기의 여러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낭독하고 전해 내려왔음
영향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밑바탕을 이루었으나 나중에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그늘에 묻힘

② 둘째 쪽(2031쪽)에서는 길은 고동색 바탕의 종이에 큰 글씨로 하얗게 처음부터 끝까지 단락 나눔 없이 죽 이어서 열 개의 문장으로, 마가복음의 특별한 의도(앞쪽의 도표식 소개에서 밝힌 ‘신학’)에 초점을 맞추어 마가복음의 짜임새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 놓았습니다.

③ 마가복음 본문 뜻풀이 첫 쪽(2033쪽) 바깥쪽에서는 마가복음 전체에 관한 참고자료를 알려 줍니다.

- “더 읽을거리(Lektüre)”에서는 최근(1987~2007년)에 독일어로 나온 마가복음 주석서 두 권과 학습서 한 권을 소개합니다.

- “매체(Mittel)”에서는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 ‘부교재’ [bibel(plus)]의 다른 세 가지 어디에 마가복음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4) 성서 각 장 전체의 참고자료 소개 보기

(1) 창세기 1장 전체의 참고자료 소개

14쪽 바깥쪽의 “초점(spot)” 아래에 다음 세 가지 자료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① “관련본문(Stellen)”에서는 창세기 1:1-2:4 전체, 1:2, 3, 4, 7, 21 관련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적어 둔 관련 구절과 어떤 점에서 관련되는지 그 내용도 간추려 알려 줍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1-2:4의 관련 구절로 신명기 26:5-9와 시편 78편과 에스겔 20장을 들면서, 이 네 군데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간추려 말하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사건을 다루는 점에서 서로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7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다’라는 표현은 9, 11, 15, 24, 30절에도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② “용어 해설(Essay)”에서는 ‘하나님/신들’과 ‘창조’와 ‘짐승’이라는 세 가지 올림말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해설 내용은 각각 고린도

전서 8:1-6과 시편 104편과 욥기 38-39장 뜻풀이의 바깥쪽에서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1-6의 “초점(spot)”을 찾아보았는데, 고린도전서 8:1-6 뜻풀이(2382-2383쪽) 바깥쪽에 ‘하나님/신들’을 해설하는 내용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두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설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③ 14-17쪽 바깥쪽에 있는 “영향(Wirkung)”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비롯된 개혁교회의 교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일러 주는데, 서로 관련된 세 가지 올림말을 다룹니다.

- 먼저 ‘창조’ 자체를 두고서는 시편 19:1-7 뜻풀이 바깥쪽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1164-1165쪽)을 찾아보면, 스위스의 종교 개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하인리히 불링어(Heinrich Bullinger)가 1552년에 창조를 두고 쓴 말에서 시작하여 요하네스 칼빈(Johannes Calvin)이 1559년에, 요하네스 코카이우스(Johannes Coccejus)가 1665년에,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가 1830년에, 칼 바르트(Karl Barth)가 1945년에,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이 1985년에 쓴 글까지 끌어다 씁니다. 그 뿐만 아니라 1984년 캐나다 장로교회의 문서 일부까지 옮겨 놓았습니다.

- 뒤이어(14-15쪽) 창세기 1-2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심’이라는 교리를 개혁교회 전통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일러 줍니다. 여기서도 여러 신학자 곧 아만두스 폰 폴란드도르프(Amandus von Polansdorf)가 1624년에, 뻬에르 모리(Pierre Maury)가 1960년에, 기스베르트 포에트(Gisbert Voet)가 1648년에, 위르겐 몰트만이 1971년에, 에밀 브룬너(Emil Brunner)가 1950년에, 요하네스 코카이우스가 1665년에, 조나던 에드워즈(Jonathan Edwards)가 1765년에, 알로이스 임마누엘 비더만(Alois Emanuel Biedermann)이 1965년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1884년에 쓴 글을 옮겨 적어 두었습니다.

- 다음으로는(16-17쪽) 창세기 1:26-28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신 데서 비롯된 개혁교회 교리의 역사를 다룹니다. 1559년의 요하네스 칼빈에서 시작하여 1717년의 프리드리히 아돌프 램페(Friedrich Adolf Lampe), 1576년의 페트루스 마르튀르 페어미글리(Petrus Martyr Vermigli), 1967년의 헨드리쿠스 버코프(Hendrikus Berkhof), 1937년의 에밀 브룬너, 1945년의 칼 바르트, 1985년의 위르겐 몰트만의 글에까지 이릅니다.

(2) 마가복음 1장 전체의 참고자료 소개

2034쪽 바깥쪽 “초점(spot)” 아래에 다음 세 가지 자료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다.

① “관련본문(Stellen)”에서는 2-3, 6, 11, 13, 23-27, 24, 25, 35, 43-44절의 관련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2-3절은 출애굽기 23:20과 말라기 3:1과 이사야 40:3을 뒤섞어 인용하고 있음을 맨 먼저 알려 줍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1:6에서 세례 요한이 입었다고 하는 털옷과 돌렸다고 하는 가죽 띠와 관련되는 구절로는 열왕기하 1:8을 듭니다.

② “용어 해설(Essay)”에서는 ‘예수’, ‘세례자 요한’, ‘세례’, ‘회개’, ‘용서’, ‘죄’, ‘영’, ‘하늘’, ‘아들/하나님의 아들’, ‘천사’, ‘하나님의 나라’, ‘안식일’, ‘권위’, ‘거룩한/거룩한 것’, ‘기도하다’, ‘깨끗하다’라는 올림말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설 내용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를 밝혀 놓았습니다. 그 안내를 따라가 보면, 이를테면 1절의 ‘예수’ 관련 해설 내용은 마가복음 9:2-13 뜻풀이(2059-2060쪽) 바깥쪽에서, 마가복음 1:4-6에 나오는 ‘세례 요한’ 관련 해설 내용은 누가복음 1:5-25 뜻풀이(2091-2092쪽) 바깥쪽에서, 마가복음 1:40-42에 나오는 ‘깨끗하다’ 관련 내용은 레위기 11:1-47 뜻풀이(273쪽) 바깥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마가복음 1:22, 27에 나오는 ‘권위’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 해설은 누가복음 20:1-8 뜻풀이(2156쪽) 바깥쪽에서 찾아보게 안내해 놓았는데, 거기서 그 내용을 읽어 보면, ‘권위’를 뜻하는 그리스어의 본뜻이 무엇이고, 실제로 성서에서 말하는 권위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간추려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와는 달리 아예 마가복음 1장 뜻풀이의 바깥쪽에서 용어 해설의 내용까지 실어 놓기도 했습니다. 2035쪽 바깥쪽에서 마가복음 1:2-15의 “용어 해설(Essay)”로 제시한 ‘회개하다’와 2036쪽 바깥쪽에서 1:14-15의 용어 해설로 제시한 ‘복음’과, 2036-2037쪽 바깥쪽에서 1:29-2:12의 용어 해설로 제시한 ‘기적’이 그러합니다.

③ “영향(Wirkung)”에서 다룰 주제로 마가복음 1:9-11에서는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13절에서는 ‘천사’와 ‘귀신’을,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합니다. 이어서 그 실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을 알려 줍니다. 그 안내를 따라 고린도후서 13:13 뜻풀이(2423-2424쪽) 바깥쪽에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해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와 관련하여 1534년의 바젤 신앙고백, 1559년 칼빈, 1830년의 프리드리히 쉐라이에르마허, 1932년의 칼 바르트, 1996년의 토머스 토렌스, 1980년의 위르겐 몰트만의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의 해설 내용은 각각 스가랴 4:1-14 뜻풀이(1915-1916

쪽), 누가복음 10:18 뜻풀이(2126-2127쪽), 마태복음 19:16-26 뜻풀이(1996-1997쪽)의 바깥쪽에 실려 있습니다. 각 풀이에서는 해당 주제를 두고 개혁교회 전통을 대변하는 여러 학자가 밝힌 견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 『취리히 성서 해설』의 신명기 전체 해설과 1장과 12장 뜻풀이

1) 신명기 전체 해설

성서 각 책 전체 해설과 단락별 본문 해설은 서로 밀접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신명기 전체 해설을 먼저 소개하고, 1장과 12장 뜻풀이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399쪽에서는 신명기를 통틀어 다섯 문장(번호 1-5)으로 간단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긴 문장은 여러 개의 짧은 문장(기호 a-d)으로 끊어서 우리말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¹⁵⁾

(1a) 히브리어 성서에서 신명기가 차지하는 자리를 보면, 신명기는 앞에 나온 것을 새롭게 풀이하는 책으로 읽을 책이다. (1b)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걸어온 이야기를 간추려 이야기해 준다. (1c) 다른 한편으로는 시나이 산에서 받은 율법을 설교하듯이, 신명기 당시 상황에 알맞도록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2a) 신명기에 대한 이런 이해는, 구약성서의 첫 그리스어 번역본에 보존된 이름인 <듀테로노미온>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2b) 이 이름은 ‘두 번째 율법’을 뜻한다. (3a) 신명기는 ‘모세의 다섯 번째 책’ 곧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오경 맨 끝에 자리 잡고 있다. (3b) 그렇지만 성서학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신명기의 이런 위치가 이 책이 원래 뜻하던 바와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4a) 신명기의 율법 부분(신 12-25)은 아마도 가장 오래된 율법 자료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4b) 이 율법 자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모아두었던 것이다. (4c) 그러다가 북왕국이 기원전 722년에 망한 뒤에 남왕국 유다로 망명해 온 사람들과 함께 그리로 넘어온 듯하다. (4d) 거기서 수 백 년 지난 뒤인 요시아 임금 때 나라법의 자리를 차지했다(왕하 22-23). (5) 바빌로니아에 사로잡혀 가서 살던 믿음의 사람들¹⁶⁾(기원

15) 될 수 있으면 한 문장이 16어절을 넘지 않게 하고, 독일어 문장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옮겼습니다. 독일어 지시대명사는 더러 실명사로 고쳐 옮기기도 하고, 글 흐름에 따라 원문에 없는 것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6) 독일 낱말 그대로는 ‘신학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전 596~536년)은 이 법을, 이스라엘 전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생각했다.

신명기 본문 뜻풀이 맨 뒤(480쪽)를 보면, 신명기를 풀이한 사람이 마틴 로제(Martin Rose)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제는 신명기 전체 해설에서 우선 신명기가 구약성서에서 차지하는 자리와 책 이름이 지니는 뜻을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신명기의 중심 부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간략하게 알려 줍니다.

2) 신명기 1장 뜻풀이

로제는 46절이나 되는 긴 신명기 1장을 한 단락으로 다룹니다(401-404쪽). 이 점에서 절수가 비슷한 마가복음 1장을 파스칼레 론데즈(Pascale Rondez, 2084쪽)가 열 단락으로 나누어 다루는 것(2033-2036쪽)과는 아주 판판입니다.

로제는 신명기 1:1-5가 책 이름 역할을 한다는 말로 본문 풀이를 시작합니다. 그러고서는 곧바로 신명기의 문학적 특성과 쓴 사람과 쓴 때와 쓴 곳을 알려 줍니다. 뒤이어 신명기의 열개를 소개하면서 신명기가 오늘 구약성서의 책 순서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지니는 뜻을 신명기 전체 해설에서보다 좀 더 자세히 알려 줍니다.

신명기는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에 오늘 성서학에서 ‘신명기 역사가들(Deuteronomisten)’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곧 신명기 정신으로 역사를 쓴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서 썼다. 그들은 신명기를 모세의 고별 연설체로 썼다.

이야기하듯이 써 놓은 1-11장과 26-34장은 신명기의 바깥 틀을 이루며 가운데 들어 있는 12-25장을 감싼다. 12-25장에는 여러 가지 율법을 모아 놓았다. 이 율법 모음은 신명기를 쓴 사람들에게까지 옛 어른들로부터 전해내려 온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잣대로 삼아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때부터 망할 때까지 이르는 역사를 기록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긴 역사 기록인데, 이 기록 맨 앞에 신명기를 두었다. 이런 식으로 신명기를 독자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고 풀이하는 열쇠로 삼게 하려 한 셈이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 받아 망했다.

그런데 신명기의 열개와 구약성서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지니는 뜻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은 신명기 전체 서론에 들어갈 만한 내용입니다. 앞서 소개한 창세기와 마가복음 전체 해설문에서도 그러했습니다.¹⁷⁾

신명기 1:6부터는 모세가 지난날의 여러 가지 사건을 돌이켜 보며 말합니다. 로제는 그 흐름을 깨뜨리고, 모세를 도와 일할 사람들을 세운 이야기(9-18절)와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22-45절)가 끼어들었다고 봅니다.¹⁸⁾

모세를 도와 일할 사람들을 세운 이야기(9-18절)는 호렙산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6-8절)과 이스라엘이 길을 나선 이야기(19절 이하) 사이에 끼어들었다. 6-8절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곧 호렙산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호렙산을 떠나는 것을 19절에 가서야 볼 수 있다. 따라서 9-18절은 6-8절과 19절 사이에 들어온 것이다.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22-45절)는 바로 앞에 나온 모세의 요구와 걸맞지 않는다. 곧 20-21절에서 모세는 땅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8절)을 이스라엘에게 생각나게 하고서는, 땅 차지하러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하러 올라갔어야 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다(22절 이하).

이어서 로제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풀이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줍니다. 곧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노여움이라는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왜 모세와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 갈 수 없게 되었는지가 드러난다. 또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도 알 수 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다.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광야 세대가 죽지 않은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45절). 오랜 심판의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46절).

3) 신명기 12장 뜻풀이

17) 위 4.3)(1)②와 4.3)(2)②를 보십시오.

18) 이는 마틴 로제(Martin Rose)가 『취리히 성서 주석』 총서 가운데 신명기 주석을 쓰면서 펼친 주장입니다. M. Rose, *5. Mose. Teilband 2: 5. Mose 1-11 und 26-34. Rahmenstücke zum Gesetzkorpus*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1994), 471-488에 자세히 나옵니다.

로제는 신명기 12장의 본문도 그냥 하나로 묶어 풀이합니다(429-432쪽). 그렇지만 실제로 뜻을 풀이해 나갈 때는 여러 단락으로 나눕니다.

2-28절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정하실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규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로제는 같은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본문을 네 단락으로 나누고 그 네 단락이 다 다른 시기에 생겨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오래된 단락인 13-19절은 아직 유목민의 전통이 남아 있는 때에 생긴 것인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거주 지역이 크게 넓어진 때에 20-27절이 덧붙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사로잡혀 가서 살 때에 8-12절이 덧붙고, 그 뒤로 아직 그렇게 살 때이거나 사로잡혀 살던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2-7절이 덧붙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0년에 걸쳐 12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덧붙은 여러 단락에서는 각각 먼저 생긴 단락의 내용을 새 시대에 맞게 다듬어 덧붙였음이 똑똑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6. 『취리히 성서 해설』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

우선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을 내면서 네 가지 ‘부교재’[bibel(plus)]를 함께 만들어냈다는 점이 새롭습니다. 그리하여, 힘들게 개정된 성서를 개인의 생활에서든 교회 안팎의 이런저런 모임에서든 잘 쓸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취리히 성서 해설』을 읽을 때도 수시로 다른 세 가지 부교재를 끌어다가 함께 쓰면 성서를 이전보다 훨씬 더 입체적으로 재미있게 읽고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취리히 성서 해설』만 두고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1) 성서 본문의 형성 과정을 두고 풀이하는 내용

성서 본문 뜻풀이에서는 신구약성서 신학의 최근 연구 결과까지 과감하게 반영하여 일반인에게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해설 성서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최근 성서학 연구의 열매를 보통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도 맛볼 길이 열린 것입니다. 특히 성서 각 책과 한 책 안의 각 본문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연구의 결과를 알려 줍니다. 이를테면 에스겔서 기본 정보의 ‘통일성’ 항목에서 20세기 후반에 에스겔서 연구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발터 침멀리(Walther Zimmerli)가 주장한 “이어

쓰기(Fortschreibung)”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¹⁹⁾ 로제가 신명기 1장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중에 들어왔다고 풀이하는 것과 신명기 12장이 네 단계에 걸쳐 생겨났다고 하는 것도 최근 연구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드레아스 린데만(Andreas Lindemann, 2424쪽)이 고린도후서 전체 해설문에서 고린도후서가 여섯 편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 것도 그러합니다.

이런 내용이 성서를 그저 몇 사람의 전문가가 한꺼번에 죽 써서 전해준 것으로 믿어온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서 본문을 찬찬히 주의 깊게 읽는 사람들에게는, 성서 본문에서 글의 흐름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눈에 떨 때 해당 본문을 넘어서서 더 큰 틀에서 어떤 흐름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는 가운데 성서 안에 남아 있는 해석의 역사를 느끼면서 성서의 말씀이 늘 살아 움직이는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서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할 때 어느 한쪽의 주장으로만 치우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성서의 한 본문을,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새 시대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이해해 오는 과정을 거쳐 오늘의 성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의 시대도 전해 받은 성서를 그저 들어오던 대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해할 용기를 낼 수 있기도 할 것입니다.

2) 개별 단락의 신선한 뜻풀이

개별 단락 뜻풀이에서도 이전의 다른 해설 성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신선한 내용이 자주 눈에 띕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2:14-41 뜻풀이에서 다니엘 마구에랏(Daniel Marguerat, 2327쪽)이, 성령강림에 뒤이어 베드로가 사도의 권위를 지닌 인물로 처음 한 설교가 예수님이 이룬바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처음으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셨다고 한 본문을 떠올리게 한다(2245쪽)고 풀이한 점이 그러합니다.

3) 용어 해설의 새로운 점

용어 해설에서도 새로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 이전의 해설 성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용어 해설이 들어와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를테면 이미 앞에서 다룬 ‘권위’가 그러합니다.²⁰⁾

19) 위 5.를 보십시오.

20) 위 4.4)(2)②를 보십시오.

4) 성서의 가르침과 교리를 이어주기

성서의 본문을 근거로 개혁신교회에서 그동안 어떻게 가르쳐 왔는가를 조직신학자들의 견해를 살피면서 잘 정리해서 소개해 놓은 점에서 스위스 개혁신교회의 전통과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일단 개혁신교회라는 교단의 울타리 안에서 주로 이루어진 작업이어서 같은 성서를 읽는 다른 교단의 전통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함께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개혁신교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런 “영향” 항목의 내용은 성서의 가르침이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가르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5) 뜻풀이의 알맞은 분량

본문 뜻풀이의 분량을 단락으로 나눈 성서 본문과 거의 같게 함으로써 이전의 여러 해설 성서에서 해설이 짧아 느꼈던 아쉬움을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너무 길어서 읽기 힘든 주석서보다는 쉽게 다가가갈 수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6) 책의 효율성 있는 짜임새

『취리히 해설 성서』는 성서 본문의 단락별 뜻풀이에 곁들여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알려 줌으로써 열심 있는 독자들이 스스로 더 깊이 성서를 공부하도록 격려합니다. 그것도 책 전체, 각 장, 한 절 또는 여러 절에 관한 것으로 구별하여 다룬 것도 독자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또 책 전체를 소개하는 것 말고는 각 쪽의 바깥쪽에 참고자료를 소개한 점도 괜찮아 보입니다.

7) 아쉬운 점들

(1) 사본이나 본문 번역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²¹⁾ 이런 문제는 아마도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 자체의 각주에서 다루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보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본문 뜻풀이 바깥쪽에 번역 관련 각주를 덧붙이거나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 해당 구절의 각주를 보라고 안내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1) 이를테면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 시 100:3의 각주와 히 7:24 각주를 보십시오.

(2) 40명의 성서학자들이 나누어 본문 뜻풀이를 쓴 까닭에 집필 지침에 따른다고 애썼을 것임이 분명한데도 때로는 학자에 따라 이런저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우선 본문의 단락 구분도 학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서술 내용의 학문적 수준과 표현 형식에서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전문 용어를 그대로 쓴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본 정보 소개 ‘통일성’ 항목에 나오는 ‘서방 본문’이 그런 경우입니다.

(3) 성서 각 책 첫머리의 “귀땀(tip)”의 “더 읽을거리(Lektüre)”에서 추천하는 책들이 대부분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성서 장절 표시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쓴 경우도 더러 눈에 띕니다. 이를테면 디도서 1:10-16 뜻풀이(2528쪽) 밑에서 여덟째 줄 괄호 안의 절수 ‘14’는 ‘2:14’로 고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11 뜻풀이(2403쪽) 둘째 줄 괄호 안의 고린도전서 1:3은 고린도전서 1:4를 잘못 쓴 것입니다.²²⁾

7. 『취리히 성서 해설』과 한국 교회

『취리히 성서』 2007년 개정판 부교재 가운데 들어 있는 『둘러보기 - 취리히 성서 가이드』와 『깊이 들어가기 - 취리히 성서 세미나』와 『함께 듣기 - 원음 취리히 성서』는, 제작 의도와 짜임새와 내용은 좋으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 한국 교회 실정에는 그리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뜻풀이 - 취리히 성서 해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활용해볼 만한 것으로 남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미 나와 있는 술한 해설 성서와 견주어 볼 때 『취리히 성서 해설』은 그 내용이 풍부하고 알차며 신선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 교역자들과 신학도들과 평신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수준이 그동안에 높아지기도 했으므로 오히려 이전보다 어려운 내용도 잘 소화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성서를 사랑하며 꾸준히 차근차근 자세히 읽

22) 얼마 전부터 국내 열일곱 명의 성서학자들이 대한성서공회의 부탁을 받아 『취리히 성서 해설』을 한글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2017년 1월 12일 목요일 오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모인 ‘취리히 성서 해설 번역자 워크숍’에서 나눈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취리히 성서 해설』을 한글 번역으로 읽을 수 있다면, 성서를 더 잘 이해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취리히 성서 해설』은 스위스 취리히 개혁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스위스 학자들이 만들어 낸 해설 성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의 여러 교단이 함께 계획하고 한국 학자들이 집필하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줄 해설 성서를 만들어낼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합니다.

<주제어>(Keywords)

성서, 독일어 성서, 『취리히 성서』, 성서 해설, 성서 연구.

Bible, Bible in German, *Zürcher Bibel*, Bible Explained, Bible Study.

(투고 일자: 2017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17년 2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4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영봉,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 스테디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원문연구』 9(2001), 69-82.
- 김창락,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2001), 56-68.
- 왕대일,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구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2001), 41-55.
- Gundert, Wilhelm, “Bibelübersetzungen IV/1”, Gerhard Krause und Gerhard Müller, hrsg.,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6, Berlin; New York: W. de Gruyter, 1980, 269-276.
- Leppin, Volker, “Zwingli, Ulrich (1484-1531)”, Gerhard Müller, hrsg.,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36, Berlin; New York: W. de Gruyter, 2004, 793-809.
- Rose, Martin, *5. Mose. Teilband 2: 5. Mose 1-11 und 26-34. Rahmenstücke zum Gesetzeskorpus*,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1994.
- Sauer-Geppert, Waldtraut Ingeborg, “Bibelübersetzungen III/1”, Gerhard Krause und Gerhard Müller, hrsg.,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6, Berlin; New York: W. de Gruyter, 1980, 228-246.
- “Die neue Übersetzung der Zürcher Bibel”, <http://www.tvz-verlag.ch/zh-bibel>.
- “Die Zürcher Bibel”; “Die Revisionen der Zürcher Bibel”, <https://www.bibelwissenschaft.de/wibilex/das-bibellexikon/lexikon/sachwort/anzeigen/details/bibeluebersetzungen-christliche-deutsche/ch/73ef820864a3879e22854008a752c356/>.

<Abstract>

Book Review -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Konrad Schmid and Matthias Krieg, eds.,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11)

Donghyun Park, Sang-Won Lee

(Retired Professor of th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In this article, we will introduce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It is one of the four companion books entitled ‘*bibel(plus)*’ published with *Zürcher Bibel* (revised in 2007). In so doing, we will think over how Korean churches and Christians could use this kind of study Bible for their own purposes. First of all, we will survey a short history about the translation and revisions of *Zürcher Bibel* and briefly explain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ur volumes of the *bibel(plus)*. Thereafter, we will look into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in detail.

This study Bible with expositions alongside the text of *Zürcher Bibel* 2007 was published in three volumes: two volumes of the Old Testament and one volume of the New Testament. It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the introduction, which is included in volume 1. It introduces *Zürcher Bibel* 2007 and four volumes of the *bibel(plus)*, and explai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Bible among the *bibel(plus)*. The second part is the text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and expositions on them, which are found throughout three volumes. The last part is the appendix, which includes the glossary, a catalogue of essays (located in the expositions’ section), and the list of authors of expositions, etc.

The expositions on each text of the Bible begin with a short introduction of the book as a whole, which includes the name of the book, date of writing, place of writing, author, literary characteristics, and theology of the book. Then it succinctly summarizes its contents and starts commenting on the text. The section of *Lauftext* presents *Zürcher Bibel* 2007 pericope by pericope. It continues to explain meanings of the text. The section of *Rand* provides further information on other biblical passages, essays, books and media related to the text in question. Lastly comes the author of the expositions. Biblical and theological explanations do not hesitate to communicate fruits of recent biblical scholarship with its ordinary readers. In particular, it informs readers of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texts that has been discussed among scholars.

These pieces of information may help readers to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history of Bible interpretation in a fresh way. We can also find out expositions of the texts and explanations of biblical terms which would be found in other study Bibles. The abundant up-to-date contents of this study Bible is its merit. On the other hand, the academic level of expositions and expressions is uneven, which might be unavoidable in a cooperative work of many different authors. There might be contents that are not easy for Korean ministers, seminarians, and lay persons to accept and digest. But there are also many Korean Christians who meticulously read the Bible verse by verse. The Korean translation of this study Bible would bring great joy to the latter group of Christians, helping them to better understand the Bible in a deeper level.